

제11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문예부문 에세이 제출 양식

작품 제목	학교 안전과 사이버 문제를 마주하며
1. 내용 기입	
<p>띠리링!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힘겹게 일어나 등교 준비를 했다. 준비를 마치고 학교로 걸어가는 길이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초록불이 되었다. 건너려는 순간, 앞에서 차가 급히 멈췄다. 그 차 앞에는 2학년 선배가 놀란 얼굴로 넘어져 있었다. 다행히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매우 아찔한 순간이었다. 선배는 휴대폰을 보고 이어폰을 끼고 걷고 있었고, 차량은 급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 운전자는 급히 내려 선배의 상태를 확인했고,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해 일이 커졌다. 경찰관들은 다른 학생들을 지나가게 하여 나도 함께 그 자리를 떠나 학교로 들어갔다. 그 이후로 선배는 트라우마는 남지 않았는지, 횡단보도를 지날 때 좌우를 잘 살피는지 걱정과 함께 궁금해졌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통학 시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날 나는 도보로 등교할 때 그것도 초록불인 횡단보도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p> <p>최근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민진(가명)이가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던 중 급히 속도를 내다 넘어져 이마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을 보았고, 다른 친구 지호(가명)도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다가 차량과 부딪혀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이 났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위험하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타고 지나가기 일쑤다.</p> <p>몇 해 전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전동킥보드를 곳곳에 세워두고, 원하는 곳까지 결제 후 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그런데</p>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헬멧 착용이 필수이고, 2명이 같이 타는 것은 금지라고 안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멧을 쓰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보기가 힘들다. 전동킥보드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헬멧 미착용과 2인 탑승을 목격하게 되면 신고를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가끔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앞에서도 1년에 한 번쯤은 그런 캠페인을 해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특히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2교시에는 학교에서 사이버 안전 교육을 받았다. 사이버 괴롭힘,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도박과 같은 사이버 문제들과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의 위험에 대해 잘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요즘 사이버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이버 범죄와 폭력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사이버 괴롭힘은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이버 도박은 인터넷을 통해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금전적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내 친한 친구인 지수(가명)는 최근 학교에서도 멍하니 있거나 말을 걸어도 잘 반응하지 않았다. 가정적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학교가 끝나고 우연히 지수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다. 화려한 광고가 뜨는 작은 베팅 게임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수가 점점 그 게임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물어보니 지수는 처음에는 무료 도박 게임을 하면서 용돈의 몇 배를 쉽게 벌었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을 걸게 되었고 결국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했다. 지수는 사이버 도박을 6개월 이상 해왔고,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나는 지수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수는 현재 도박을 중단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 경험을 통해 사이버 도박에 대한 진실되고 깊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하교 후 학원을 마치고 집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보았다. 뉴스에서는 사이버 범죄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 새롭게 등장한 '그루밍 기법 범죄'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에서 DM을 통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나왔는데, 범죄자가 먼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이었다. 인스타그램은 원래 만 14세 미만은 가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나이를 속여 가입하는 경우가 문제라고 했다. 또한,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계획하는 범죄자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 범죄자들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오늘 겪었던 등교 시의 교통사고, 친구가 겪었던 사이버 도박 문제, 그리고 뉴스에서 본 사이버 성범죄 등 우리 생활에는 다양한 위험과 범죄가 주변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여러 위험의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많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수록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실천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